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I. 원고 제출 및 게재

- 『한국과 국제정치』는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그 편집 대상으로 한다.
- 투고자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하며(복수의 경우 1인 이상),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관련분야 전문가는 예외로 한다. 투고 시 모든 저자의 정보(소속, 직위, 최종학위명)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게재 시 모든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논문 첫 페이지에 명기한다.
- 제출 원고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단, 제출된 원고가 편집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원고는 아래의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한글로 작성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 원고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ifes.kyungnam.ac.kr>) 또는 이메일(alimseo@kyungnam.ac.kr)로 제출하며, 제출된 원고는 『한국과 국제정치』 발행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비밀심사를 거친다.
-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심사한 결과 수정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이에 응답이 없거나 수정을 거부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게재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게재 승인을 받은 논문의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귀속된다.
- 게재 승인을 받은 논문 중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에 한하여,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II. 원고 작성의 일반적 요령

1. 원고의 길이

- 원고의 길이는 요약,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본문만의 경우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작성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50매를 초과할 수 없다.
- 부득이한 경우 초과된 원고 1매당 10,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2. 원고의 구성

원고는 표지, 국영문 요약·주제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된다.

- 표지는 제목, 저자의 성명과 소속 및 직위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감사의 말을 포함한다.
 -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제목 우측 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한다.
- 국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다. 영문 요약은 영문 제목과 영문 저자명, 소속을 포함하여 국문 요약의 분량에 준하여 작성한다. 주제어는 4~6개 내외로 한다.
-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가능한 짧게 한다. 5행(200자 원고지 1매)을 초과하는 각주는 본문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한다.
-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한다. 참고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 표와 그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 제목은 '〈표 1〉 ...' 혹은 '〈그림 1〉 ...'과 같은 형식으로 표나 그림의 위에 적는다.
 - 설명주는 '주:'로 시작하고 출처는 '출처:'로 시작하여, 표나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범례도 그림의 아래에 표시한다.

- (3) 표 속의 행과 열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 (4)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 시에는 흑백으로만 표현됨에 유의한다.
- (5)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지 않은 표나 그림(삽화, 사진 포함)의 경우 직접 마스터를 뜰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것을 제출한다.

3. 원고의 형식

- 1)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문단과 글자모양은 다음과 같다.

문단 모양: 줄간격: 160%, 본문: 들여쓰기 15p, 참고문헌: 내어쓰기 30p
 글자 모양: 신명조 10p, 장평 100%, 자간 0%

- 2)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대소번호는 다음의 예에 따른다.

I. 1. 1) (1) 가.

- 3) 출전의 표시: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원고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Ⅲ. 출전 표시 요령'을 참고한다.

4. 저자의 익명성

심사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자명은 별도의 표지에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줄고 ○○○… 혹은 …줄저 ○○○…

5. 한글 사용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되, 먼저 한글로 표기 후 괄호 안에 한자를 부기한다.

지체주의(肢體主意)

6. 외래 용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처음에 한하여 한글로 표기 후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조합주의(corporatism)

7. 외국 인명

외국 인명은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처음에 한하여 한글로 표기 후 괄호 안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마오쩌둥(毛澤東), 빌 클린턴(Bill Clinton),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8. 외국 지명

외국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처음에 한하여 한글로 표기 후 괄호 안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뉴욕, 선전(深圳)

9. 외국 기관·단체의 명칭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단체의 이름이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고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역어에 이어 괄호 안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다.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역내 통화 간의 가치 안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1979년 3월에 창설되었다. EMS에는 현재 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다.

III. 출전 표시 요령

-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안에 저자의 성(한글·한자어 인명은 성명), 출판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 동일한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 구체적인 예
 -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 괄호하고 그 안에 출판연도를 표기한다.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 괄호 안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박재규(1975)는..., 키신저(Kissinger, 1957)는...
 - 저자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성(한글·한자어 인명은 성명)과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박재규, 1975), (Kissinger, 1957)
 - 면수는 출판연도 다음에 콜론(:)을 하고 숫자를 표기한다.
(박재규, 1975: 55), (Kissinger, 1957: 112-113)
 - 저자가 2인일 경우 저자를 모두 표기하며,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앞 순서대로 두 저자만 표기 후 '외(et al.)'를 붙여 나타낸다.
(김혁래·김영래, 2002), (김택중·안병준 외, 1988)
(Almond and Verva, 1963), (Brady and Verba et al., 1995)
 -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한 괄호 안에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참고문헌 표기 순서에 따른다.
(김혁래·김영래, 2002; 박재규, 1975: 55; Kissinger, 1957: 112-113)
 - 한 저자의 두 개 이상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경우 쉼표(.)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박재규, 1975, 1980, 1990)
 - 한 저자의 동일한 연도에 출판된 두 개 이상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경우 연도 뒤에 알파벳을 이용하여 구분한다.
(박재규, 1975a, 1975b)
 -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지명』, 발행 年年年年/月月/日日(월간지 年年年年/月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중앙일보』, 1993/04/08: 5), (『신동아』, 1993/04: 233)
 -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경우 '출판예정(forthcoming)'이라고 기재해야 하며, 미간행물일 경우 '미간행(unpublished)'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박재규, 2019 출판예정), (박재규, 1987 미간행)
(Kissinger, 2019 forthcoming), (Kissinger, 1990 unpublished)
 -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 가능한 최소한의 저자표기를 사용한다.
(통일부, 1992), (노동부(1992)는...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

-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은 자세한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혀야 한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 각 문헌은 한글 문헌, 한자어권 문헌(일본어, 중국어), 알파벳권 문헌, 기타 언어 문헌순으로 배치한다. 한글·한자어권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알파벳권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문헌은 해당 언어의 자음 표기순으로 배열한다.

구영록. 1995,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 법문사).
박재규. 1975, 『북한평론』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邢廣程. 1998, 『蘇聯高層決策70年』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Kissinger, Henry. 1957,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NY: Doubleday).

3. 동일한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연도 뒤에 알파벳을 이용하여 구분한다.
4. 출판예정인 저술은 출판연도와 함께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정보를 표기한다.

박재규. 2009 출판예정, "한반도 정세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25권 1호.

Berelson, Bernard. 1952 forthcoming, "Democratic Theory and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16, No. 3.

5.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의 제목은 따옴표(" ")로, 저서의 제목은 한글·한자어권 문헌의 경우 이중격쇠(『 』)로 그리고 알파벳권 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2) 표기 순서는 논문의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학술지명, 권호수, 면수, DOI순으로 하며,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서명, 출판사순으로 한다.
- 3) 면수는 숫자만 표기하고, 시작 면수와 끝 면수 사이에는 하이픈(-)을 표기한다.

4) 기타

(1) 저서

가. 1인 저자의 경우

구영록. 1995,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 법문사).

Kissinger, Henry. 1957,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NY: Doubleday).

나. 2인 이상 저자의 경우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표기한다. 단, 처음부터 표지나 표제지에 '○○○ 외'라고 표기된 경우 그대로 표기한다.

노철화·김창수·서석홍. 1998, 『중국기업의 소유형태별 경영특성』 (서울: 집문당).

Lee, Manwoo, Ronald D. MacLaurin, and Chung-in Moon. 1988, *Alliance under Tension* (Seoul, Korea: IFES, Kyungnam University).

(2) 학위 논문

김근식. 1999, "북한발전전략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Gotschang, T. Richard. 1982, "Migration from North China to Manchuria," Ph. 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3) 편저

가. 편저에 포함되어 있는 저자가 밝혀진 글을 언급할 경우 해당 저자 중심의 문헌 정보를 제공한다.

심현용. 2001, "조선인의 러시아 이민사," 서대숙 편, 『한국과 러시아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53-82.

Conver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David E.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NY: Free Press): 206-261.

나. 단, 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언급될 경우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서대숙. 2001, 『한국과 러시아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심현용. 2001, "조선인의 러시아 이민사," 서대숙(2001): 53-82.

최덕규. 2001, "대한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서대숙(2001): 3-51.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명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표기한다.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 지, 김동택 역. 1998, 『자본의 시대』 (서울: 한길사).

(5) 동양 고전의 참고문헌을 작성할 경우 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를 기재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삼국사기』, 『선조실록』, 『論語』 등과 같이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함택영. 2006, “한국 국제정치이론의 발전과 반성,” 『한국과 국제정치』, 22권 4호: 1-40.

Laurence, Henry. 2007, “Japan’s Proactive Foreign Policy and the Rise of the BRICs,” *Asian Perspective*, Vol. 31, No. 4: 177-203.

(7)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proceeding)의 경우 학술회의명 다음의 괄호 안에 장소와 날짜를 함께 표기한다.

백낙청. 2006, “한반도 정세와 해법,”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36차 통일전략포럼 (서울, 7월 3일).

Lee, Su-Hoon and Dean Ouellette. 2008, “The Six-Party Talks and Dismantlement of DPRK’s Nuclear Program,”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FES (Seoul, February 1).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박재규. 2008, “균형 조화로 대북정책을,” 『한국일보』, 1월 12일: 31.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23.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제작자, 제작연도, 주제명, 웹주소, 검색일자(年年年/月月/日日)의 순으로 표기한다.

박정진. 2017, “북핵문제 해결 국면 전환 적극 모색해야,” 『IFES현안진단』,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501V.aspx?code=FRM171109_0001 (2018/01/01).

6.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위원회(전화 02-3700-0708, alimseo@kyungnam.ac.kr)로 문의한다.

글을 주실 분들께

『한국과 국제정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연 4회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입니다. 이 학술지는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정책을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실 글은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글은 돌려드리지 않으며 『한국과 국제정치』 심사인의 심사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논문게재시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됩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의 편집방향과 편집기준에 따라서 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을 넘지 않게 ‘아래아 한글’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원고 제출시 별도로 국·영문 요약문(각각 200자 원고지 1~2매 분량)과 국·영문 핵심어(Key words) 4~5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 및 제출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원고제출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시거나 이메일(alimseo@kyungnam.ac.kr)로 보내주십시오. 온라인 접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ifes.kyungnam.ac.kr>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위원회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전화: 02)3700-0708 / 팩스: 02)3700-0707

이메일: alimseo@kyungnam.ac.kr